



# 그들은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 '조마조마'

## “동네의원, 사용중단 사실 몰라 집중”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 백신 집중 도민 조사 결과

### 추석연휴기간 제주 찾은 귀성·관광객 28만명 코로나19 확진자 '무'... 입원환자도 모두 퇴원 도방역당국 "18일까지 고강도 사후 방역 관리"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에 28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십만명이 찾았지만 제주에는 4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도 없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 한시름은 닦이지만 추석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 속에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특히 이번 주 한글날이 낀 주말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사후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25만3326명이 제주를 찾았으며,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4일 추가로 2만6000여명이 입도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월 30일부터 5일간 제주를 찾은 인원은 총 15만8000여명으로, 당초 입도 예상 인원인 19만8000여명보다 적은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루 평균 3만1000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국제공항과 도내 관광지들은 북새통을 이뤘다.

이 기간 제주지역에는 당초 우려

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2일 59번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지난 6월 13일 이후 112일 만에 코로나19 격리 환자는 0명인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용한 전파 고리가 있을 수 있고,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기간 제주 입도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18일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기간과 8월 광복절 연휴 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진 것과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고려해 오는 18일까지를 위험기간으로 설정, 비상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9일간의 추석연휴 이후에도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서 ▷타지역 방문자 중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발열증상자 의무 검사 ▷감염

고위험시설 집중 방역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지역 방문 이력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될 경우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도는 현재 도내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검사 방법, 검사 대상 등 세부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 3과 감염 고위험 시설을 포함해 41개 유형별 집중 방역 관리는 오는 1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및 목욕탕·사우나 집합제한 조치와 직접판매 홍보관과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주관·연계 3인 이상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11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제주 체류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상온 노출 의심 신고로 사용이 중단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도민 8명은 같은날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온 노출 의심 독감 백신을 맞은 도민 8명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도내 동네의원 3곳에서 각각 접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는 13~18세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민 8명이 백신을 접종한 지난달 22일은 질병관리청이 독감 예방접종 국가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이다.

질병관리청은 그달 21일 오후 늦게 "백신 공급 업체가 지역별로 백신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서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독감 예방접종 국가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용 중단 결정은 문제의 백신이 이미 전국 의료기관·병원에 공급된 상태에서 접종 개시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논란의 독감 백신은 전국의 13~18세 아동·청소년이 맞아야 할 백신으로 당초 9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제주에서는 도내 병·의원 200여곳에 3만7620명분(도스)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용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도내 모든 병·의원 제주도의사회회를 통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중단하라고 안내했지만 일부 의료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접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제의 독감 백신) 사용 중단 결정이 도내 모든 병·의원과 의료기관에 신속히 전파됐지만 미처 일부 동네의원이 이런 사실을 소속한 의료진에게 충분히 전파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국가로부터 공급 받은) 무료 독감 백신과 각 병원이 보유한 (유료)백신을 혼동해 접종하거나, 고의로 접종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에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300명을 돌파했다. 이상민기자



연휴 끝자락 제주 가을바다 4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가을바다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아버지 때린 50대 집유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90대 아버지와 형을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속삭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재산분제로 가족끼리 말다툼이 벌어지자 리모컨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주방 식탁 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90세 아버지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말리는 형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상민기자

### 포커게임 긴급 해산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제주 시내 연동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 열린 포커 게임 대회에 대해 긴급 해산 조치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일 한 민원인으로 부터 카드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보건건강위생과,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을 현장에 즉시 파견했다. 당시 포커게임 현장에는 서빙 직원을 포함해 4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은지기자

## 제주 하루 23건꼴 강력범죄 발생

### 경찰청 2019년 발생현황 분석... 살인 20건·강도 21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4대 강력범죄'가 8000여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4대 강력범죄가 총 8364건(하루 평균 23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절도·폭력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 20건, 강도 21건, 절도 3214건, 폭력 5109건이다.

경찰서별로는 제주동부경찰서 관내에서 3135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했고 제주서부경찰서 관내 3030건,

서귀포경찰서 관내 2199건 순이다.

살인과 강도는 동부경찰서 관내 각각 11건·3건, 서부경찰서 관내 각각 5건·11건, 서귀포경찰서 관내 각각 4건·7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4대 범죄는 시민들의 체감 치안도와 직결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혜기자

###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받던 40대 숨져

#### 도 "제주선 2016년 이후 4년만에 사망자 발생"

제주서 울해 첫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치료받던 40대가 사망했다. 제주에서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4년만이다.

4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A(49)씨가 28일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달 16일 어패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8·9월에

많이 발생하며 만성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진다.

감염되면 발열·오한·혈압 저하·복통·설사·괴사성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40~50명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45명이 발생해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 제주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미숙기자

### 일가족 탄 차량 전복 생후 4개월 여아 숨져

추석 당일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지고 일가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

난 1일 오후 2시11분쯤 제주시 애했읍 소길교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가 연석을 들이받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경상을 입고, 생후 4개월 여아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대혜기자

**그랜드보청기**

**추석한기위1에1개1드림행사!**  
\*전장보청기, 청각검진, 청각재활, 청각교육, 청각상담\*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상충될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로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한라체육관, 인사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시점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